

I. 총평

최근의 물리 경향은 출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2024학년도까지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물리에서 고득점이 어려웠으나 작년(2025학년도)과 이번 2026학년도 물리 문제를 보면 충분히 풀이할 만하다. 계산이 어렵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지엽적이지 않고 평이하다. 그동안 출제된 기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충분히 공부한 수험생은 고득점 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는 없고, 단위별 분포와 난이도별 배치가 적절하여 체감 난이도는 예년보다 낮을 것이다.

특히 계산이 양이 확 줄어들었다.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 답에 이르는 문제는 거의 없다. 상황에 맞는 식에 대입하여 풀이하면 대부분 풀리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풀이의 시간이 짧다 보니 전체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이번에 출제된 대부분의 문제는 작년에 강의한 이론과 문제 풀이에서 다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이론 워크북>, <유형별 기출 250제>, <유형별 물리 260제>를 가지고 충분한 반복 학습이 되었다면 올해 8개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I. 시험 분석

1. 단위별 분석

| 단 원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 | 비고 |
|-------|--------|--------|--------|--------|----|
| 역학 | 2 | 3 | 2 | 2 | |
| 유체역학 | 1 | 0 | 1 | 0 | |
| 열역학 | 1 | 1 | 1 | 1 | |
| 전자기학 | 3 | 3 | 3 | 3 | |
| 파동과 빛 | 1 | 1 | 1 | 2 | |
| 현대물리 | 2 | 2 | 2 | 2 | |

단위별 분포는 예년과 비슷하다. 단지 1번 문제(줄의 정상파)의 경우 파동과 빛 단위에 넣었지만 실제 문제 해결 방법은 역학의 개념이 다수 포함된다. 따라서 2년 주기로 2024학년도 출제와 비슷하다.

2. 난이도별 분석

| 난이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 | 비고 |
|-----|--------|--------|--------|--------|----|
| 상 | 3 | 2 | 1 | 1 | |
| 중 | 5 | 5 | 5 | 5 | |
| 하 | 2 | 3 | 4 | 4 | |

작년과 비교하여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쉽다. 시간 안배 관점에서 복잡한 계산의 문제가 적어 전체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문제의 기본 풀이 방법을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단순한 계산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다.

3. 문항별 분석

| 번호 | 출제단원 | 내용영역 | 난이도 | 세부지식 | 출제 문제 교재(적중) |
|----|-------|----------|-----|-------------|------------------|
| 1 | 파동과 빛 | 줄의 정상파 | 하 | 정상파 속력 | 필수 워크북 198번 |
| 2 | 역학 | 물체의 평형 | 중 | 힘과 토크의 평형 | 유형별 물리 53번 |
| 3 | 역학 | 강체의 회전역학 | 하 | 강체의 운동에너지 | 필수 워크북 59번 |
| 4 | 전자기학 | RC 회로 | 중 | 축전기의 전하량 | 유형별 물리 151번 |
| 5 | 전자기학 | 자기력 | 중 | 자기장 속 원운동 | 필수 워크북 158번 |
| 6 | 전자기학 | 전자기 유도 | 중 | 패러데이 법칙 | 필수 워크북 169번 |
| 7 | 열역학 | 열기관 | 하 | 열기관, 카르노 조건 | 유형별 물리 113, 114번 |
| 8 | 파동과 빛 | 빛의 굴절 | 중 | 굴절률과 파장 | 유형별 물리 213번 |
| 9 | 현대물리 | 상대성이론 | 상 | 길이수축과 시간팽창 | 필수 워크북 242번 |
| 10 | 현대물리 | 핵물리 | 하 | 베타 붕괴 | 필수 워크북 239번 |

Ⅲ. 향후 대비책

변리사 시험은 그동안 출제된 26년 260개의 물리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기출이 하나라도 된 단원이나 유형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 부분의 학습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물리 8개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출과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이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물리 공부는 법과목과 반대로 학습해야 효율적이다. 이론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 이론 정리를 다 암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식 암기는 응용의 힘을 떨어트릴 수 있다. 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최대한 이해하고, 오픈북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식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픈북으로 어떤 식을 적용할지 연습하는 게 물리 공부의 전부이다.

기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이 개념이 이해가 되었다면 전체 기출 문제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변리사에 기출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보면 언젠가 모든 식이 암기가 될 것이다.

물리에 대해 경험이 없더라도 일단 8개 이상을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 <기본이론>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론에 연결된 <워크북>을 통해 응용력을 키운다면 9월에 있을 <260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 실제 본고사에서도 고득점 할 수 있다.